



*"You are
welcome
to live among
us"*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33-34, 개역개정)

레위기19장에는 신약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두 계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 19:2, 베전 1:16) 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 19:18, 마 22:39) 라는 명령입니다.

때때로 교회는 거룩과 사랑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만 한정합니다. 하지만 레위기 19장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다양한 실제 행동들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레위기는 우리가 정치, 관계, 예배, 사업, 농업, 가정생활, 국가의 이민정책의 영역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거룩해야 하고 사랑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세계에서 캐나다와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 때문에, 교회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웃의 난민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이민법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데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인종차별주의는 너무나 자주 북유럽 후손들에게는 이익을 주고 토착원주민과 전세계에서 온 흑인, 라틴계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피해를 입혀왔습니다.

토착원주민을 제외한 우리 모두는 이민자이며 이민자의 후손이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민자들, 특히 그 중에서도 유색인종들은 불공정한 처우를 겪어 왔고 앞으로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민자들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함으로써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저희는 북미주 개혁교회 사역분
담금, 지역 교회의 지정헌금 및
여러분과 같은 개인들의 넉넉한
후원으로 이뤄진 세 종류의 재
정후원을 받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후원하시려면
바로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인종관계 사역부

인종관계 사역부는 북미주 개혁교회 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신자들의 공동체 및 전세계에 걸친 인종차별의 원인과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 교단 전체를 돋는 프로그램과 자원들을 설계하고, 체계화하며 시행합니다. 오늘같은 특별한 주일에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은 인종관계 사역부가 담대하게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도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PHONE
877-864-3977 (US)
800-730-3490 (Can)

EMAIL
race@crcna.org

WEBSITE
crcna.org/Race

